

# 무주산골영화제 현재·미래 논하다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아카데미 토크 개최... 발전 방안 등 토론 시간 가져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아카데미 토크가 6일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아카데미 토크가 6일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열렸다.

무주산골영화제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이카이빙연구소, 4단계 BK21 호모 다비블로스 양성 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영화산업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화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학술행사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흥영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김이석 교수(영화진흥위원회 위원)와 춘천영화제 김형석 집행위원장(영화평론가), 전북대학교 김건 교수(前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예매시스템을 통한 유료화로 대중영화제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무주산골영화제의 변화와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플라뇌르(Flaneur) 개념을 중심으로 무주산골영화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제해 관심을 모았던 김건 전북대학교 교수는 사과의 대반전에서 시작한 무주산골영화제의 과거부터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대표 휴양영화제로 성장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김건 교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관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역할상 전략, 타 국제영화제와의 시공간 관계의 '경쟁'에서 '새로운 사고의 가치'로의 무게 중심 전환, 철학적 미전과 가치 정립,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모색 등을 제시했다. 황인홍 군수는 "전문가 여러분과 무주산골영화제의 지난 1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성장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골영화제가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또 한국 영화와 영화제 발전에 기여하는 영화축제로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개막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무주둔나 무운동장과 덕유산국립공원 일원에서 21개국 96편의 영화와 공연, 전시와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 자리에서 "국내의 영화제 동향과 무주산골영화제의 현재"를 주제로 국내 영화제 현황과 국제 영화제의 역사, 영화제의 가치·변화·관계에 대해 공유한 김이석 동의대 교수는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영화제로 지역성을 담아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영화제 기간 외에도 지역의 영화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형석 춘천영화제 위원장은 "로컬 영화제로서 무주산골영화제의 가치와 현재"에 대한 발표를 통해 2세대 영화

# 무주군,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박차

### 반딧불시장 중심 전·후간 도로 위치 417개 상가 대상



등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됐다.

무주군은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주읍 상권활성화는 쇠퇴한 무주읍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상권환경을 개선하고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무주읍 내 반딧불시장을 중심으로 전·후간 도로(22215.638.3㎡ 규모)에 위치한 상가 417개로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돼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고객 유치와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것으로 농산물특화마켓과 세일페스타, 인센티브 관광지, 맞춤형 크리에이터 양성, 무주상품개발,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은 △무주반딧불시장의 재탄생, △무주 투어상권 조성, △참여형 지역상권문화 창조를 큰 테마로 반딧불 빛거리 조성과 반딧불시장 디자인 개선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회를 열고 최은영 추진단장을 비롯한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으며 무주군의회 송재기 산업건설위




원장과 중소벤처기업청 이행로 팀장을 비롯한 무주읍 주민 대표 등 참석자들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최우선 과제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주에서 먹고, 사고, 주무시면서 무주를 다시 찾게 하고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불편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사업이 무주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주읍 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 여러분의 맹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오는 12월까지 반딧불시장 테리어의 14개 단위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무주군** 무주군은 6일 무주읍 기념공원 충혼탑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무주중학교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유공자·유족들을 위로하고 보훈 실현 및 보훈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묵념과 헌화 및 분향, 추모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국가유공자와 유

가족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며 "무주군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은 무주읍 기념공원 충혼탑 외에도 6개 읍면에 조기를 게양하고 현충시설 14곳에 근조화환을 놓아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기렸다. 한편, 무주읍 기념공원 충혼탑은 6.25 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 무주군민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65년 조성된 곳으로 2009년 재건됐으며 해마다 추념 행사가 개최되며 역사를 되짚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진안읍 충혼 불멸탑에서 진행된 이번 추념식에는 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학생과 군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 취명에 맞춰 제7733부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와 함께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낭독과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춘성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유가족들의 인내 덕분임을 항상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장수읍 남산 충혼비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현충

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계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보훈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향후 보훈단체 간담회, 6.25전쟁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장수귀농학교' 운영

장수군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와룡자연휴양림에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제30기 장수귀농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30기 장수귀농학교에서는 귀농·귀촌인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강의와 선도농가 견학 방문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리엔테이션과 장수군 소개, 귀농정책 설명을 비롯한 귀농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귀촌 성공 사례 등 11개 과정을 통해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중 최훈식 군수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매력적인 귀농·귀촌 지로서 장수를 홍보하는 한편, 관내 농가 현장 교육을 통해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만큼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닌 실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해 귀농 창업의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지난 5일 '2024년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안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진안군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씩 최대 12개월, 연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전액 군비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첫 시행 후 2021년~2023년까지 57명의 관내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2차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8세~45세) 중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이다. 단, 앞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월세 70만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군은 나이, 거주기간, 소득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6월 28일까지 농촌활력개발청장지원팀(063-430-8057)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지역 명소탐방 워크숍 실시

장수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년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우리 지역 명소탐방' 워크숍을 실시했다. 군 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도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명소 방문 및 현장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가치 발견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함양코자 마련됐다. 워크숍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의 이해 및 공공분야 활용(챗 GPT) 교육'과 지역 현안은 파악하기 위한 명소탐방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특히 명소탐방은 계북면 행복나눔터 '꼭두인형극' 관람과 지역 랜드마크 '장수 만남의 광장' 탐방, 지역 특산품인 오미자를 활용한 '뽕소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역의 특색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